

농업생물 다양성 교두보이자 식량주권의 근간

토종 씨앗의 역할

김석기 지음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고 한다. 그만큼 농부에게 씨앗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버들버, 뽕시금치, 개밭시리조, 개겔무, 청참외, 분홍감자, 붉은아욱, 구억배추, 푸른독새끼콩'...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토종 작물이 많다. 이러한 토종 씨앗은 왜 사라졌을까? 또한 토종에는 어떤 특성이 있고, 토종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

오랫동안 생태전통농업을 공부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석기 씨가 펴낸 '토종 씨앗의 역할'은 토종씨앗의 의미와 가치, 활용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토종씨앗이 현대농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토종 만능론'을 경계한다. '한국농업의 다양성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 서문에서 "조금이라도 토종 씨앗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토종 씨앗이 농업생태계에 비집고 들어와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집필 의도를 밝힌다.

저자는 "토종 씨앗은 농업생물 다양성의 교두보"라고 말한다. 조선주권을 빼앗은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 근대적인 토지소유 관계를 확립한 후 1920년부터 쌀 생산량을 늘리는 산미증식 계획을 세운다.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씨앗을 바꾸는 것이었다. 앞서 조선 팔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을 조사해보니



1451종류 (메벼 876, 찰벼 383종)였다. 1940년에는 논벼 전체 재배면적 91%에 한 품종만 재배됐다. 해방 이후에도 '통일벼'와 같은 특정 품종 재배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속에서 토종 벼는 자취를 감췄다. 현재 농촌진흥청에 보존돼 있는 토종 벼는 394품종이다.

토종 씨앗은 러시아 니콜라이 바빌로프(1887~1943) 박사와 같은 육종학자들이 수집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골에 사는 '여성농민'(할머니)들의 손에 의해 명맥을 유지했다. 씨앗은 여성들이 시집을 때 가져오는 혼수품이기도 했다. 또 씨앗은 전통 농경사회에서 사교파는 상품이 아니라 대부분 집집마다 받아서 자급하고, 이웃과 서로 나누기도 하는 '공유재'였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씨앗의 권리는 심고 가꾸는 농부가 아닌 파는 다국적 종자회사의 몫으로 돌아갔다.

토종씨앗 보존과 관련해 소개하는 '농부권' 개념은 새롭다. '농민과 그가 속한 지역의 공동체가 동·식물의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개량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뜻한다. 저자는 "토종씨앗은 식량주권 실현의 근간"이라며 "대안 먹거리 운동과 함께 토종씨앗이 더 널리 안정적으로 재배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품종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토종 씨앗은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해 대대로 사양, 재배 또는 이용되고 선별돼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식물"을 뜻한다. 1911년 조선 팔도에서 재배되던 벼 품종은 1451종으로 다양했다. 단원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벼타작'.

나아가 저자는 토종씨앗에서 시작하는 '생태적인 사회'를 꿈꾼다.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람들은 토종씨앗으로 생태적인 농업을 실천하고, 소비자는 그

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기꺼이 제값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들녘·1만3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정치·생애·직업·탐구...생각의 한계를 깨는 놀라운 제안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

KBS '명견만리' 제작진 지음



강연과 다큐를 결합한 KBS의 렉처멘터리(Lecture+Documentary) '명견만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중의 지혜를 모아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지식 콘텐츠다. 김난도, 김영란, 송길영, 최재천과 같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부터 서태지, 성석제, 장진 등 문화계 인사까지 우리 사회 주요 인사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인구쇼크, 교육, 기술 등 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새로운 담론을 제기하며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양강좌를 개설하기도 했으며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도 '명견만리'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른 미래 사회의 주요 키워드들 중 '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을 엮은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이 출간됐다. 책은 익숙한 현실에서 벗어난 대담한 상상력으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에 대해 생각의 한계를 깨는 놀라운 제안들을 던지고 있다.

정치 파트에서는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시민 직접 참여의 열풍을 통해 개인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다룬다. 생애 파트에서는 장수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애 지도를 제안하고, 새롭게 등장한 '제3연령기'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한다.

직업 파트에서는 정해진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혀

다른 선택을 들여다보고 660만 자영업자의 미래와 소상공인이 행복할 경제의 가치를 짚어본다. 탐구 파트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징이자 한 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호기심의 가치를 밝히고 데이터 빅뱅 시대를 헤쳐나갈 해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보다는 잠재된 '기회'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콘텐츠는 많았지만 다가올 미래를 불안하게 조망하거나 경고하는 정도였다. 제작팀은 주제마다 탄탄한 취재와 풍부한 국내외 분석 사례, 세계적 기판과 연구소,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이슈에 접근하는 균형잡힌 길을 안내한다. <인물루멘셜·1만58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꿈꾸는 탱고클럽=안드레아스 이즈 쿼에르도 장편소설. 2014년 독일에서 출간 당시 독자들의 입소문만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작. 가버 세닝은 출중한 외모에 성공가도를 달리는 잘나가는 엘리리트다. 완벽한 업무 능력을 갖춘 기업 컨설턴트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냉정하고 차가운 가버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이야기다. <마시멜로·1만4800원>

▲도시의 재구성=도시문제는 융합적이다.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한 지식만으로 접근할 수 없고, 사회학적인 고민만으로도 부족하다. 이 책의 저자는 기자라는 지위를 심분 활용에 우리를 지배하는 환경으로서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석과 제안을 내놓는다. 도시라는 현실 공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코리빙, 테크놀로지 네 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압축해 전개했다. <이데아·1만9000원>

▲무엇을 먹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우리에게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다. 10억 명이 굶주리고 20억 명이 영양실조 상태인 데 반해, 생산되는 식량의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저자들은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이같은 식량조달 문제부터 경작형태의 문제점, 미래의 식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본다. <에코리브르·2만원>

▲권력과 검찰=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기자, 검사 출신 국회의원, 판사 출신



법조인,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개혁을 들여다본다.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법원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최강욱이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담을 이끌어간다. 이들은 '검찰공화국'을 살살이 분석하면서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나설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봐야 할지 명확히 그려낸다. <창비·1만5000원>

▲대학의 영혼=실용지식 위주의 취업 준비기관이 되어버린 오늘의 대학 현실. 지성, 감성, 영성이 조화된 전인적 인간을 키우는 일야말로 대학 본연의 사명이라며 이에 필요한 통합 교육의 철학적 근거와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들이 말하는 통합 교육이란, 학생·교사의 외면과 내면이 분열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육, 학생들을 그저 채워야 하는 '빈 그릇'이 아니라 통합된 전인적 인격체로 보고 인간으로서 갖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물음에 응답하는 교육이다. <마음친구·2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아주 멋진 여성들=세상을 보다 가치 있고 희망적으로 일구어 낸 멋진 여성들을 소개한다. 책에 나오는 열세 명의 여성들은 엄격하고 차별적인 시선에 굴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하여 자신의 분야에서 뜻을 이루었다. 그들의 꿈, 도전정신, 열정을 읽다보면 자신감과 용기가 속속 자라날 것이다. <머스트비·1만2000원>

▲드림 세프=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의 작가로 활동했던 이승현 작가가 펴낸 청소년 문학. 시트콤에서 튀어나온 듯 입담 넘치는 개성적인 캐릭터, 탁월한 심리 묘사, 감동적인 스토리는 독자들의 마음을 즐겁고 훈훈하게 만든다. 요리 하나하나에 인 물들과 연관된 삶의 향기가 스며들어 감동을 전한다. <마음어음·1만2000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선택과 두려움, 좌절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당당



히 나를 지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아이들의 일상과 밀접한 상황별 예시들을 통해 자존감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어떤 사고와 마음, 행동이 필요할지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끈다. <아름다운사람들·1만2000원>

▲거인이 살고 있어요=전 세계의 거인들뿐 아니라 거인들을 물리치는 영리하고 젊은 영웅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등장인물들은 가끔 무모해 보일 정도로 용감한 선택을 한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도전하는 용기가 멋있다. 130cm의 거인 팝업 포스터가 함께 들어 있다. <보림·2만1800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아니라 맛의향연도 선사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누,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